지역 소식통

고창군, 작년 50여건의 기관표창 · 인센티브 확보

고창군이 지난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중앙기관 15건, 도 16건 등 50여건의 기관표창과 함께 7억여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최고의 행정역량을 뽐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주요평가로 지정·관리했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도내 유일' 1등급을 달성하는 등 행정력을 제대로 입증했다.

고창군 기획예산실은 지난 2023년부터 정부 주요평가 항목 10개를 지정 관리해 오고 있다.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군 최초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최우수군 선정 등 대외적으로 행정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턴 각 부서를 대표하는 15개의 평가를 추가해 총 25개로 확대했다.

각 평가목표를 도전적으로 상향 설정하고 부군수 주재의 전략회의 수시 개최, 총력을 기울여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5년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부안군은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응급환자 진료와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중 92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지정된 날짜와 시간을 준수해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민들의 진료 및 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부안성모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혜성병원은 야간진료실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또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부안군보건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진료를 실시한다.

일반 약국들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대에는 더조은약국이 공공심야약국을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저소득층 복지 지원 한층 강화

정읍시,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1인 가구 기준 76만5000원 등으로 증가

정읍시가 생계급여 인상과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저소득층 복지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되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은 1인 가구 기준 76만 5000원, 4인 가구 기준 195만 1000원으로 각각 5만 2000원과 11만 7000원이 증가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선정 제외 기준은 기존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 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변경됐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적용 연령은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차량 기준 역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돼 수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생계급여 인상 및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 금액 확대

강력범죄 상해 항목 추가…개물림 · 부딪힘사고 진단비 일반진료 등 보장 늘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부터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사회재난 등 24개 항목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또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력범죄 피해, 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 진단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온열질환진단비, 사회재난사망 등도 보장된다.

올해에는 강력범죄 상해 항목이 추가됐으며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 진단비의 경우 응급진료 외에 일반진료까지 보장 금액이 확대된다.

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으로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신청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혹은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의회, 서부지법 불법점거 폭력사태 엄중처벌 촉구"

건의문 채택… 민생안정지원금 필요성도 강조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20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불법점거 및 폭력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최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점거 및 폭력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연루된 자들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이강세 의원은 "이번 불법점거 폭력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국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서부지법의 폭력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원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생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관광 우리가 책임집니다"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관광 활성화기여 '기대'

정읍시가 지역 관광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관광발전위원회를 새롭게 꾸렸다. 정읍만의 자원을 활용해 휴식과 힐링, 미식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시는 20일 관광발전위원회(이하 관광발전위) 위원을 새로 위촉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관광발전위는 이학수 시장과 최준양 관광체육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명과 민간 위촉직 위원 1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관광발전위는 정읍 관광 여건 개선과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 곳곳의 자원을 잘 꿰어 정읍의 보배로 만들어 달라"며 "위원들의 다양한 고견을 수렴해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은 최근 관광 트렌드에 맞춘 휴식과 힐링, 미식의 도시로 자리 잡고 있고 내장산문화광장을 비롯해 천사하어로즈와 순환열차 등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또 "숨겨진 명소와 이야기, 매력적인 관광 코스를 발굴하고 이를 상품화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생활인구 확대 전 부서 노력"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 연석회의서 종합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전 부서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20일 열린 1월 중 연석회의에서 "2024년 생활인구 방문객 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했다"며 "최근 코레일관광개발의 가장 많이 간 2024년 여행지 1위도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평가 지표와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전 부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생활인구 확대'라는 방향성을 갖고 생활인구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 지정 촉구와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추진된 서명운동이 오는 31일 종료된다"며 "서명운동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중앙로 · 성산2길, 종합정비사업 선정

고창군 중심을 가로지르는 중앙로와 성산2길이 안전하고 걷고 싶은 길로 대변신한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고창읍 중앙로와 성산2길이 최종 선정됐다.

고창읍 중앙로는 공용버스터미널부터 고창군청까지를 잇는 길이다.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불법주정차들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았다. 성산2길은 터미널부터 고창고등학교 앞까지의 2차선 일반도로로 인도가 따로 없어 보행자들의 불편이 컸다.

군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안전하고 걷고 싶은 길로 바꿔낼 계획이다. 인도설치, 차량속도 저감시설,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범죄예방시설, 전선 지중화, 교통체계 개선, 쉼터조성 등이 이뤄진다.

특히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한전 지중화사업' 등과 연계해 세계유산도시 품격에 걸맞는 깔끔한 도시 가로환경이 기대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